



Q



봄바람 맞고 인생사진 찍으려면 밀양으로...벚꽃 명소 5곳

송고시간 I 2022-03-22 11:42











이정훈 기자 기자페이지



밀양 가곡 벚꽃길

[밀양시 제공. 재판매 및 DB 금지]

(밀양=연합뉴스) 이정훈 기자 = 매화가 지고 벚꽃이 서서히 피기 시작하는 3월 말.

경남 밀양시가 코로나19 걱정 없이 즐길 수 있는 비대면 벚꽃 명소 5곳을 22일 소개했다.

밀양시는 삼문동 수변공원, 가곡 벚꽃길, 내일동 영남루 수변공원·밀양읍성, 삼랑진 안태, 단장면 표충사 벚꽃길을 추천 했다.



시가지를 휘감아 도는 밀양강으로 둘러싸인 섬 같은 삼문동 강변을 따라 삼문동 수변공원이 있다.

5km에 이르는 수변공원을 따라 벚꽃과 함께 유채꽃도 즐길 수 있 다.

가곡 벚꽃길은 용두교·세종중학교 사이 850m 구간에 걸쳐 수 령 100년이 넘은 벚나무들이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.

길게 늘어진 가지에 풍성한 벚꽃이 펴 카메라만 갖다 대면 '인생 사진'이 가능하다.

























日 공주와 결혼한 대학 동기, 뉴욕 변호사 시 험 또 불합격

박진, 광우병 사태 때 美당국자에 "한국에 너 무 많은 민주주의"

여성 전용 교도소라는데...美서 동료 재소자 끼리 성관계 후 임신

"마지막 순간 마음 바꿨다" 2015년 파리 테러 범이 밝힌 '그날...

韓 육사 생도 영 왕립사관학교 첫 졸업...여왕 "양국...

프로야구 LG-SSG전 오심 내린 심판, 2군 강등...

기원전 2~3세기 마야 달력 파편 발견..."가장 오래...

한국 유튜버, 촬영 중 실수로 우크라 국경 넘었다 ...





밀양읍성 벚꽃길

[밀양시 제공. 재판매 및 DB 금지]

내일동 영남루 수변공원·밀양읍성은 강물에 비친 벚꽃의 일렁임과 성벽 돌계단 길을 따라 흐드러지게 핀 벚꽃이 일품이다.

삼랑진 안태는 벚꽃 드라이브 길로 이름 높다.

삼랑진역에서 출발해 안태리 양수발전소로 이어지는 벚꽃 터널이 드라이브에 최적이다.

단장면 표충사 벚꽃길은 표충사로 가는 길 양쪽으로 2km에 걸쳐 벚나무 터널로 널리 알려져 있다.

전망·분위기 좋은 카페도 많아 일상 속 힐링을 할 수 있다.



삼랑진 안태 벚꽃길

[밀양시 제공. 재판매 및 DB 금지]

seaman@yna.co.kr

제보는 카카오톡 okjebo

<저작권자(c) 연합뉴스, 무단 전재-재배포 금지> 2022/03/22 11:42 송고

#밀양

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



에디터스 픽 Editor's Picks

● 영상

▶ 01:59

[영상] 윤석열, 안철수 '패싱' 질문에 "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"



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

현장 영상 →

▶ 01:18

[영상] 입·발 묶인채 두 눈만 멀뚱멀뚱...누가 학대했니 [영상] 곡사포·수송헬기·장갑차...美, 꺼렸던 무기들 [영상] 미국 최고위급 키이우 방등 결국 우크라에

링컨 등 후보군"

▶ 02:22

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영상



5 문대통령, 손석희와 대담...靑 "임기 5년 소회 밝

오늘 거리두기 해제 발표, 2년 1개월만 종료...마스

尹당선인·安위원장 만찬 회동..."공동정부 한치의 흔들림 없

尹 당선인 "韓, 위상 맞게 외교정책 강 화...美와더 강력한 동맹"

"'의학에 뜻' 정호영 아들, 학부 4년간 관

련과목 2개 수강"

'검증의 시간' 시작됐다...한동훈, 청문회 준비 돌입

뭐하고 놀까? ## 😛 →

⊕ 39 힐예정"



















뉴스홈 최신기사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

비주얼뉴스 영상 포토 화보 #D 그래픽 **뉴스 상품** 프리미엄뉴스 뉴스리 인터넷맞춤형 보도자료 해외배포 보도자료 국사베포

테미벌뉴스 핫뉴스 톰뉴스 주요뉴스 긴급뉴스 단독뉴스 많이본뉴스 **출판물** 이매진 연합연강 영문연강 한국인물사전 단행본 월간마이더스

뉴스+ 이슈돋보기 팩트체크 재난포털 날씨 주요신문.톱뉴스사설 이시각.헤드라인 **광고** KTX.열차 AREX.공항철도 모바일 P.C.홈페이지 출판물

 모바일뉴스
 모바일웹
 모바일웹
 보도사진
 이미지
 그래픽
 동영상
 인물

외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전체 Español Français 관련사이트 연합뉴스TV 인모덱스 한민족센터 K결정기회단(K-ODYSSEY) 채용 IR클럽 #홍

계약사/제휴문의

회사소개 윤리헌장 저작권규약 수용자권익위원회 모바일모니터링위원회 콘텐츠자문위원회 고충처리

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독자게시판 기사제보(02-398-3000) 사이트맵

연합뉴스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길 25 | 등록번호 문화,나00009 | 등록일자 1980.12.29 | 발행일자 1980.12.29 | Tel. 02-398-3114

(C) [대표이사]성기홍 [편집인]조채희

Yonhapne